7월 셋째주

가정예배지

2024년 7월 21일 주일

도입 기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삶을 살아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Jesus, My Shelter

- 1.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 2.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 후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주세요.
- 1. Jesus, You are my shelter, I trust in You. Jesus, You are my shelter, I trust in You.
 - A fierce storm may come in my way as we live each day Jesus, Your are my shelter, I trust in You.
- 2. Jesus, You're my love, I love You forever Jesus, You're my love, I love You forever
 - There's nothing in the world that can keep me from Your love Jesus, You're my love, I love You forever.
- Chorus) God, Abba Father, You have first loved me Now I surrender all to You, my Lord
 - God, Abba Father, here am I, waiting on You Lord, please use me for Your glory

본문 민수기 14장 7-10절

- 7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 9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 10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Numbers 14:7-10

- 7. and said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The land, which we passed through to spy it out, is an exceedingly good land.
- 8 If the Lord delights in us, he will bring us into this land and give it to us, a land that flows with milk and honey.
- 9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fear the people of the land, for they are bread for us. Their protection is removed from them, and the Lord is with us; do not fear them."
- 10 Then all the congregation said to stone them with stones. But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at the tent of meeting to all the people of Israel.

듣고 또 불신에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온 공동체가 좌절해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반란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며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지원과 약속의 땅의 선함을 강조하며 백성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도리어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쳐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개인, 가족, 공동체, 교회 모두 언젠가는 고통스러운 소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우리를 뿌리째 흔들수 있지만, 우리의 책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누구도 그분에 대한 생각을 갖기 훨씬 전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성막에 나타나서 백성들의 폭력적인 계획을 중단시키고 그분의 임재와 권위를 보여 주셨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논쟁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효과적인 경건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충분한 이유를

있나요? 이것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통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설 교

기

The spies' majority report disheartened the Israelites, leading to an emotional and irrational reaction. Emotional arguments may raise a mob, but they rarely bring about effective godly behavior. Despite having all night to listen to reason and turn away from rebellion, the Israelites fell into a general panic fueled by lack of faith in God's promises. They grumbled against their leaders, Moses and Aaron, and even wished to return to slavery in Egypt, accusing God of bringing them out to die. In desperation, Moses and Aaron fell facedown, fearing the consequences of the people's rebellion. Joshua and Caleb tried to reassure the people by emphasizing God's support and the goodness of the promised land, but the mob was unresponsive and even discussed stoning them. Individuals, families, communities, and congregations must all face distressing news at some point. It can shake us to our core, but our responsibility is to turn to God in faith. His favor is toward us. He sent Jesus as our Redeemer long before any of us had friendly thoughts toward Him. Has He ever been unable to deliver what He has promised? These reminders can help us regain control in a situation that might otherwise drive us to panic. Ultimately, God's glory appeared in the Tabernacle, halting the violent plans and demonstrating His presence and authority.

1. 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Why should we trust and obey God even when circumstances don't look good?

2. 우리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나은 길이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일까요?

Why do many in our culture believe their ways are better than God's?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실망하거나 낙담치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grant us the faith to live trusting in Your faithful plans for us. Even in situations we cannot understand, help us to anticipate what You will do and not be disappointed or discourage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 1.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Help us to view everything we encounter today through the eyes of faith!
- 2.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Help us to be a family that focuses on God's Word today!

기

제